

정부로부터 정보화기금 3억원 무상지원

지난 6월 우리 협회는 중소기업청의 정보화기금 3억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e-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전국 99개 컨소시엄(540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협회는 중소기업연구원, 한양대학교 및 IT 업체인 아이비젠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동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본 사업의 혜택으로는 협회 회원사들이 원하는 정보화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무상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향후 정보화의 발전전략 및 계획수립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합컨설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규모의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하반기에 컨설팅 결과의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추가금액지원)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처럼 그것도 유사이래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동 기금을 어렵게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동 기금을 잘 활용하여야 할 우리 복운업체가 10여개사 정도 밖에 신청하지 않는 등 전혀 관심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락두절 회원업체 25개사 현황 파악에 나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7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전화 연락 조차도 단절된 회원업체 25개사의 현황을 파악키 위하여 각사에 사업장 소재지 요청을 했다.

이는 협회에서 회원사에 복합운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해상화물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동 내용물이 반송될 뿐만 아니라 협회비 등도 체납되어 협회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다.

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전혀 안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협회 차기 이사회에 동 건을 상정하여 협회 회원에서 제명시킬 예정으로 있다.

만일 그동안 부득이 한 사유로 연락이 단절된 경우 지금이라도 연락이 가능하거나 사업경영을 유지하는 업체는 우리 협회에 연락하면 제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5개사는 다음과 같다.

가교물류, 게이트웨이종합운송, 나전기업, 남신행공해운, 동서다이너스티, 동신해운, 동춘해운항공, 로빈스국제운송, 로지텍, 선덕해운, 실크로드종합물류, 씨씨로지스, 씨월드해운항공, 아세아항공해운, 아트라스, 오션클라운, 오이씨, 유토코리아, 인엔아웃케이피엘, 일신인터내셔널, 제네랄후레이트, 진성종합물류, 코메트항공해운, 파이오니아해운항공, 패트라해운항공, 폴스타트랜스

국내·외 운임 장기미납무역업체 주기적으로 공개

-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지난 2개월간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

합운송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임을 장

기간 채납하는 무역업체, 및 해외포워드 명단을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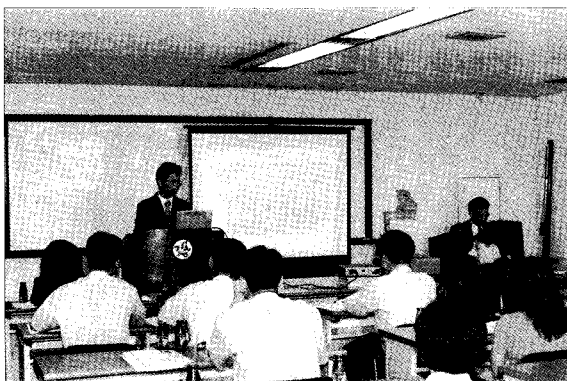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장기간 운임을 체불한 무역업체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이행을 하지 않는 해외포워드 명단이 접수되면 무역업체인 경우는 해당 무역업체에, 해외포워드인 경우는 해

외포워드 및 해당국가의 포워드협회에 일정기간 까지 납부토록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내장기미납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발행일자	미수금액(원)
동원물산	허동일	서초구 서초동 1540-9 서초빌딩4층	501-0056	2002.3.~4.	10,564,690
파워텍스타일	한경수	강남구 대치동 906-7 자승빌딩2층	553-4300	2002.1.12	851,575
YWS지퍼	노재용	종로구 충신동 25-61 2층	745-5393	2001.7.29	32,655,787
눈과안경	김병기	서초구 서초동 1337-17 보원빌딩 401호	3487-0660	2001.2.~3.	3,837,200
허드스텍	박노춘	서초구 서초동 1330-13 우영벤처빌딩	512-4597	2001.1.~7.	3,049,649
로척스	김효선	은평구 역촌동 43-19	385-4434	2002.3.25	2,228,660
필어스인터내셔널(주)	정미영	성동구 용답동 227-1 YBS빌딩 203호	2214-0194	2002.7.2	4,265,122
씨크로스해운(주)	김윤오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16층	757-9955	2001.12.29	1,399,650
(주)아이텍스무역	임문섭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오피스텔 607호	538-2022	2002.3	8,440,910
삼정실업	홍성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1동 1358-1	063-275-1400	2001.10-2002.1	1,602,345
오선무역	오영남	인천 부평구 삼산동 378-5 영일전자 지하	032-506-1913	2002. 3. 5	5,869,108

FMC규정 및 FMC BOND 설명회 개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협회 연수실에서 FMC(미연방해사위원회)규정 및 FMC BOND 등록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회원사 임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미국 및 홍콩 소재 Caesar Tsui (Risk Management Insurance Brokerage Ltd. Salse & Market Manager)와 James E. Devin (Distribution Publications Inc. President)이 FMC규정, FMC GROUP BOND(재정책임보증), 타형태의 BOND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6회 일본항만 및 산업시찰행사 거행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5일간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지역 항만 및 산업시찰 행사를 가졌다.

동 행사는 금년이 6번째 행사로서 부산항을 출발하여 오사카항, 고베항만, 아리마온천, 나라, 교토, 헤이안신궁, 오사카성, 신사이바시 등의 행선지들을 4박 5일의 짧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가깝지만 먼 일본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견학하였다.

한편, 동 행사는 매년 일본 큐슈지역을 봄 또는 가을철에 행사를 가졌으나 금년에는 하기 휴가철을 이용하여 새로이 편성된 오사카 지역을 순회하였다.

**2002년 FIATA Istanbul 총회 개최
- 김정민 회장의 4명 참가-**

지난 2002년 9월 8일(일)부터 9월 12일(목)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02 FIATA 세계총회에는 협회 김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김창목 전무, 윤원기 부회장(대동종합물류 대표), 신문범 사장(신한익스프레스 회장), 박희준 사장(국보해운 대표) 등이 참석하여 4박5일동안 각분과 및 자문기구별 회의에 참석하였다.

9월 8일에 개최된 회의일정은 △FIATA의 연간 활동보고 및 승인, △회계관련 - 2001년도 예산집행 승인, 2001년도 회계감사 보고, 2003년도 회원명단 확정, 2003년도 회계예산안 의

결, △각분과 자문기구회의 - 복합운송분과회의(철도소위원회 보고-철도사업자의 정책연계성 및 정보시스템, 해운소위원회 보고-Dr Franscesso S. Parisi사퇴 및 미국의 반해상테러 방지대책), 법률문제자문기구회의, 항공분과회의(EACP의 소개, ATDI와의 연계교육 실시보고, CCP의 5%인상 및 부피율의 수정등의 CTC로의 수정안 건의), 통관촉진분과회의(UCR관련 사항보고), 아태지역회의 등, △ABVT(교육실무분과회의) 의장 선임, △정회원 가입(네팔협회)에 대한 의결등의 순으로 처리하였다.

**CASS 차등담보제 신용범위 상향 조정키로
- 회원사 재정적 부담 줄어 -**

2002년 10월 1일부터 CASS공동담보와 관련

한 회원사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

다. 우리 협회에서 지난 8월 12일 우리 복운업체가 CASS-KOREA에 제공하고 있는 CASS공동담보의 신용범위 상향요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CASS공동담보는 지난 1999년 우리 협회와 CASS-KOREA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그동안 신용에 따른 그룹별 담보설정금액과

신용범위를 A.B.C 3그룹으로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용이 우수한 업체의 등급 상향 조정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후 3년간 국내·외 제반 경제상황 및 일천한 시행기간 등을 이유로 매년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금번 동 CASS 차등담보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CASS-KOREA 차등담보 조정내용(시행일 : 2002. 10. 1)

신용등급	현행		변경		비고
	조건	신용범위	조건	신용범위	
A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3년 이상 ○ 월3억원 년36억원이상 ○ IRR : 최근3년간 년3회이내 ○ 평균입금지연일 : 0.4일미만 ○ 최근1년간 45일평균 이상담보 	120%	좌동	130%	
B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2년 이상 ○ 월1억원 년12억원이상 ○ IRR : 최근1년간 년3회이내 ○ 평균입금지연일 : 0.4일미만 ○ 최근1년간 45일평균 이상담보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IRR : 최근2년간 년3회이내 ○ 좌동 	120%	
C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등급 이외의 대리점 ○ 최근 성수기 45일 판매 금액이상 담보설정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1년 이상 ○ 월5천만원 년6억원이상 ○ IRR : 최근1년간 년3회이내 ○ 평균입금지연일 : 0.4일미만 ○ 최근1년간 45일평균 이상담보 	110%	
D 그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 그룹 이외의 대리점 ○ 최근 성수기 45일 판매 금액 이상 담보설정 	100%	D등급신설

4분기 복합운송실무교육 4회, C/S예절교육, 영업실무 및 통신영어교육 각 2회씩 예정

복합운송업체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4/4분기 우리 협회의 연수교육은 항공포워딩기초반을 비롯한 7개과정으로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2002년도 4/4분기 연수교육은 10월 7일부터 시작될 항공포워딩기초반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4일 해상포워딩기초반, 12월 2일 항공포워딩단과반 및 12월 9일 해상포워딩단과반 교육이 각

각 실시되며, 또한 회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시키고 대하주영업에 있어 다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C/S(Customer Satisfaction)예절교육, 대하주영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업실무교육 및 우리 업계 실무자와 해외 파트너간에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워딩통신영어교육을 각각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3/4분기에는 포워딩실무통신영어교육(7.3~4, 7.15~16, 9.24~25) 및 C/S예절교육(7.6, 9.7)이 각각 3회, 2회씩 실시, 각각 157명과 98명이 수강하였고 포워딩영업실무교육(7.11~

7.12)에 56명, 항공포워딩단과반교육(8.26~8.30)에 55명 및 해상포워딩단과반교육(9.2~9.6)에 54명이 수강하였다.

2002년도 4/4분기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수강료(원)	지원금액(고용보험)		비 고
				우선지원	대규모	
항공포워딩기초반	10.7~10.25	60	190,000	169,760	150,890	
해상포워딩기초반	11.4~11.22	60	190,000	169,760	150,890	
항공포워딩단과반	12.2~12.6	20	60,000	60,000	55,760	
해상포워딩기초반	12.9~12.13	20	60,000	60,000	55,760	
C/S예절교육	10.5, 11.2	4	5,000	-	-	
포워딩영업실무교육	10.2 및 1회(미정)	4	10,000	-	-	
포워딩실무통신영어	2회(미정)	8	20,000	-	-	

인천국제공항 공동화물터미널 내부배치 문제점 건의

인천국제공항 공동화물터미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02. 7. 4)의 내부배치 계획중 창고시설을 2층으로 한데 대해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화물터미널 A측 확장부지 내에 연면적 총 84,547㎡(1층 터미널 58,500㎡, 2층 창고 10,000㎡, 3층 사무실 16,047㎡)을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 법인으로 건설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자본금 및 재원규모는 약 830억원으로 관련업체 및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투자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투자자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창고” 시설을 2층으로 한데 있다.

우리 업계의 오랜 경험으로 볼때 창고 시설은 수

출화물작업장(RFC)이 주기능이므로 작업이 용이하여야 하고 화물인도시 이동거리가 짧고 빈잡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창고시설을 2층으로 할 경우 ULD작업 UP, DOWN시설이 불가능하며, 15톤 이상의 화물작업 불가 및 길이 3미터 이상 화물의 작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모든절차는 단순용이하고 편리함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물류비 절감이라는 공동화물터미널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창고시설을 1층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인천복운창고 투자 추진위원회는 공사의 공동창고건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래 계획한대로 화물터미널 북측 C터미널 위험물창고 옆(20,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협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site 개설, 운영

11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복운업체 구인·구직 site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복합운송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물류관련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동 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전화 원사에서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향후 회사에서 직원채용 계획이 있거나 포워딩 업체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동 site를 이용하여 채용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복운업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업체간 이직 조장 우려등 시장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입 직원에 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설치할 구인·구직 site를 비롯하여 회원사 질의 응답코너, 복운업 등록 및 변경신청절차, 협회연수교육, 보험가입, 국내외장기미납업체현황, 협회회원사현황 등 각종최신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IATA의 용적중량 조정안'에 각국 협회 강력 반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현행 6,000입방센티미터(cm³)를 1kg으로 환산하는 용적중량 단위를 5,000cm³으로 변경하겠다는 조정안에 대해 각국의 화주단체 및 복합운송협회(항공운송협회)들은 사실상 17%의 운임인상 효과가 발생되므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IATA는 지난 5월 27일 개최된 항공사들의 테리프회의에서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중 용적(부피)중량 산출방식 변경안을 제시하고 10월 1일부로 시행키로 내부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화주·포워더 및 협회들이

IATA의 조정안대로 변경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6.7%의 운임인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물류비 가중 때문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IATA에서는 10월 시행대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적항공사들의 운임인상에 대해 해주협의회 및 무역업계 대표들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운임인상에 대해 미주항로의 운임이 7% 인상될 경우 경쟁국에 비해 고운임 수준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므로 인상폭을 대폭 낮추어 줄 것으로 건의하였으며, 우리 협회 또한 이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기탁

우리 협회(회장 김정민)는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수해를 당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

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사에 성금(₩1,000,000)을 기탁(2002. 8. 26)하였다.